

창요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VOL. **42**
2020 / 06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ACT PT. Asia Chemical Industry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

ACT 건축 페인트가 만듭니다

바닥 에폭시 / 지붕 페인트 / 벽 페인트 / 보호 페인트 / 시공 가능



조도진 이사
0822-3067-5573
jodojin@aci-yuwon-biz.com

김택용 차장
081-1978-1066
kimty81@aci-yuwon-biz.com

김재옥 과장
0812-8384-8882
kimjaeok@aci-yuwon-biz.com

윤제웅 사원
0822-1348-8826
jeungyun@aci-yuwon-biz.com

강경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신남방정책 확대해야”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박복영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필요”



▲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빛을 발한 우리의 혁신역량,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한층 공고해진 위치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한층 확대·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세안(ASEAN) 회원국 주재 공관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신뢰할 협력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와 아세안 국가들은 과거 금융위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서로 긴밀히 공조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노력한다면 신남방 정책이 우리 외교의 기반을 보다 탄탄히 다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남방 지역의 경제적 교류가 끊이지 않게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공관장들에게 당

부했다.

박 위원장은 강대국 간 갈등으로 세계 생산체계에서 신남방 지역이 차지하는 경제·정치적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기존사업은 꾸준히 추진하되 한단계 업그레이드

이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10개국 대사관과 주아세안대표부가 참석해 아세안과 코로나19 협력 방안, 신남방정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교역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외적 입국을 허가받아 해외 출장을 간 기업인 총 7천900명 중 2천300명이 아세안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마루베니, 제당소송서 2차 재심 신청도 불수리

종합상사 마루베니(Marubeni)는 지난 4일, 설탕 공장 건설의 채권 회수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제당 슈가 그룹(Sugar Group)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요구받은 소송에서,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두 번째 사법 심사(재심)를 주장했지만

Marubeni

인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2건의 소송 가운데 람방주 구농 수기(Gunung Sugih) 지방 법원에 제소(구농 수기 소송)로 두 번째 사법 심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서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마루베니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슈가 그룹이 청구 내용이 동일한 2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모두 마루베니가 패소했다.

마루베니는 사법 심사를 제기, 이 중 구농 수기 소송은 올해 2월 불수리가 결정되어 있었다.

마루베니 측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있어서 최초의 사법심사 신청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불수리 된 것에 대한 이의를 포함하여 계속 사법심사제도 하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제회복 프로그램 예산, 677조 루피아 규모로 확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가 편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가경제회복(PEN Pemulihan Ekonomi Nasional)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가 총 677조 2,000억 루피아가 된다고 밝혔다.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641조 1,700억 루피아에서 약 6% 확대되었다.

스리 장관에 따르면, PEN 프로그램 예산의 확대는 사회보장과 법인세 감면 등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졌

기 때문이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기 때문은 아니다.

스리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기업 활동 외에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 PEN 프로그램 예산으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34%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다만 새 예산 가운데 의료종사자 지원용은 전체의 0.19%에 그치고 있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



에 따르면,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은 10조 4,500억 루피아로, 스리 장관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시설 등 중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1,205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예산과는 별도로 보

건부가 19개 병원과 의료기술 관계기관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41억 2,000만 루피아의 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우대 정책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도서출판/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인도네시아, 국가전략사업 점검...코로나로 고속철 등 지연

인프라 예산 코로나에 전용... 조코위 "지렛대 효과 큰 사업 우선"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신(新)수도 건설사업은 물론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 등 국가전략사업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다.

30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각료회의에서 2020~2024년 국가전략 프로젝트(PSN) 5개년 계획을 점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주력해야 하지만,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전략 프로젝트도 염두에 뒀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경제 회복에 지렛대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R80, N245 항공기 개발사업을 빼고 무인항공기(드



▲ 조코위, 2020~2024년 국가전략 프로젝트 점검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론) 개발사업 3건으로 대체하는 등 국가전략 프로젝트 목록을 조정했다.

총 89개 사업이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권고됐는데, 이 가운데 56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신규사업에는 5개 공항, 5개 산업단지, 13개 댐, 1개 제방,

2개 체련시설 등이 포함됐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도 경제조정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산 문제로 자카르타~반

둥 고속철 프로젝트는 3월부터 1년간 공사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이 수라바야까지 연결돼야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반둥(142km) 고속철 사업은 중국에, 자카르타~수라바야(720km) 준고속철 사업은 일본에 각각 맡겼는데, 이를 합쳐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또,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장관은 "또바 호수, 보로부두르, 만달리까(롬복), 라부안바조(코모도섬), 북부

솔라웨시 등 관광지 개발을 우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국가 차원에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사업을 점검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제속도를 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흘 연속 600여명씩 늘어 총 2만5천216명, 사망자는 총 1천520명이다.

앞서 공공사업주택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된 대부분 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용, 신수도 건설 예산도 병원 건설과 개선사업 등에 투입됐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부칼리만판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올해 7월 착공해 2024년 1단계 이주 완료 목표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6월 출입허가서(SIKM) 소지규정은 유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정부가 6월 한달 동안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완화 전환기간으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출입허가서(SIKM)를 소지해야 자카르타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일 이후부터는 기

존의 자보데파백(수도권) 출입경계 지역에서 검사했던 SIKM 검사를 자카르타-보데파백(보고르, 데팍, 땅양랑, 브카시) 경계 지역에서 검사한다.

현지 언론 콤포스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교통국은 SIKM 소지 의무는 코로나19 긴급대응기간이 끝날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르바란 직후 5월 24일~6월 4일 귀경을 시도하다 SIKM 미소지 등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차량은 72,293대였다.

한전·두산중 참여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사업' 예타 재심의 통과

유동성 위기 두산중, 숨통 트일 듯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이 참여한 '인도네시아 자와(JAWA)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재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1조6천억원 규모의 발전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8일 한전이 시행사로,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자와 9·10호기 사업)'이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재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와 9·10호기 발전사업은



▲ 두산중공업[연합뉴스TV 제공]

한전과 인도네시아 파워(인도네시아 전력청 자회사)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자카르타 인근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32억 달러(약 3조8천4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설계와 조달, 시공을 맡은 두산중공업 수주액이 14억 달러에 이른다.

이 사업은 지난해 KDI 예타에서 사업성 부족에 해당하는 '회색영역' 평가를 받으며 차질을 빚었으나, 이에 한전이 예타를 재신청해 이번에 재심의의 통과했다.

한전 측은 "자와 9·10호기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국가전략인프라사업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파워가 발전부지 지정·진입로 공사를 마치고 착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예타 통과로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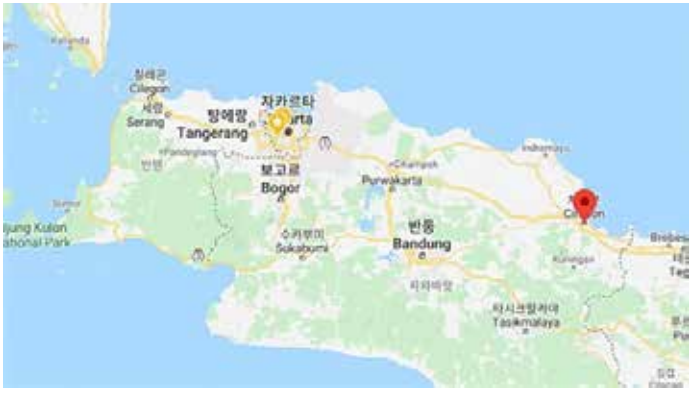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해수부, 인도네시아에 해양조사기술 전수한다.

한-인니 연안조사, 해양쓰레기, 해양플랜트 등 신남방 협력에 탄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을 전수하는 ‘인도네시아 치르본 해양·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2차년도 사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와 연안도시 ‘치르본’이 속해 있는 자바섬 북부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자카르타는 도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로 인도네시아는 이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할 만큼 연안침식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

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 정부에 해양조사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작년 부터 총 50억원 규모로 ‘인도네시아 치르본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사업(2019~2022)’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에 조사실습 보트, 수심측량장비 등 연구장비를 지원하고 해양 기초조사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치르본 해역의 수심, 해안지형, 생태계 등 실해역 탐사를 실시하고,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 지도집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바 북부

지역 해양 기초조사 자료는 인도네시아 침식 원인을 밝히고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연안침식 사례 및 유형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인니 해양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2022년까지 총 70명의 석사급 해양조사·분석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밖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정책과 관리노하우를 전수하는 ODA 사업을 작년 부터 진행 중인 한편, 2018년 치르본에 설립된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조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공동연구주제를 추진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해양과학기술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전경련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늘려달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조찬간담회서 요청



▲ 전국경제인연합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0조원 규모인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내년 착공 예정인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사업은 사업비 330억달러 규모로 세종시의 22조5천억원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권 부회장은 또 올해 1분기 양국 교역이 작년 동기에 비해 10% 줄어든 만큼 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최종 타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조속히 비준·발효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CEPA는 수입품목 중 한국은 95.5%, 인도네시아는 93.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그는 중국처럼 양국 기업인 입국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마르 하디 대사는 기초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제한 리스트 폐지, 해고규정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옴니버스법 제정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황수 일진전기 사장,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대우조선해양, ㈜한화, 두산중공업, 현대차, 포스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종근당, 대상, GS건설, 쌍용건설, 해외건설협회, 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등에서 24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광물자원부, 전기요금 9월 말까지 동결 방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 3일, 전기요금을 오는 9월 30일까지 동결할 방침을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동결은 7~9월분 요금으로,

보조금 대상이 되는 25개 카테고리, 보조금 대상이 아닌 13개 카테고리가 모두 대상이 된다.

계약 용량이 900 볼트암페어(VA)의 일반 가정용 요금은, 1 킬로와트시(kWh) 당 1,352 루피아다. 계약 용량이 200 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

의 상업 시설이나 산업용은 1,115 루피아, 3만 kVA 이상의 대형 산업 전용은 997 루피아가 된다.

정부는 앞서 보조금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조치에 대해서도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월별 계약 용량이 450 VA



인 가정의 전기요금을 무상화하고 계약 용량이 900 VA는 50% 할인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PT. KUMGANG INTERNATIONAL

35년 경험과 기술의 기업!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죠 ㅎㅎ
35년 알루미늄 샷시문 생산 외길을 걸어온
장인정신으로
인도네시아 문(門)시장을 활짝 연다!











● 알루미늄 접이식 홀딩도어
●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 방화문 & 패션도어
●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JL. Panglima Polim Raya No. 60A Jakarta Selatan
Tel : 021 2930 5937 Fax : 021 2930 5938

Factory : JL. Pengampelan Rt. 06 Rw. 03 Kp. Nambo Kaserangan Cirus Serang, Banten 42182
www.kgfiredoor.com E-MAIL : kumgang.int@gmail.com

세계은행, 인니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4개월 지속되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5% 예측



세계은행은 2일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책 일환으로 실시 중인 ‘대규모사회적제약(PSBB)’이 4개월 지속되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랄프 수석 경제학자는 “실업자 증가로 개인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 활동도 둔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최악의 경우 3.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경제 악화와 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올해 제도 성장은 확실하다”라고 예측했다.

올해 1분기(1~3월)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7%로 최근 20년 중 가장 낮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이 최악에 달할 경우 마이너스 0.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560만~960만명의 빈곤인구가 추가하여 빈곤율은 2.1~3.6%까지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빈곤층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국가경제부흥책(PEN)에 투입된 예산은 641조 1,700억 루피아에 달한다. 빈곤 가정 지원 등 사회 보장이 172조 1,000억 루피아, 공기업 12개사의 구매가 149조 2,900억 루피아 등이다.

지난 2일 기준 인도네시아 4개주와 11군/시가 PSBB를 실시 중이다. PSBB가 길어지면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해 정부는 감염률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자카르타경제신문



김재훈의 세무상식

금과 관련한 세금

통화 가치의 불확성으로 금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금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은 재무부장관령 34호 (PMK No.34/2017) 에 규정되어 있고 금괴 (Emas Batangan) 와 금 보석류 (Emas Perhiasan) 로 구분된다.

금괴는 국영기업(BUMN)인 PT Aneka Tambang (Antam) 의 본/지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금괴는 부가세가 없지만 소득세 PPh22 가 적용이 된다. 구매자가 납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0.45% 납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0.9%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납세등록을 한 구매자가 150 그램의 금괴를 구매한다고 할 경우, 150그램의 금괴 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100,000,000 + 4,500,000 (PPh22) = 104,500,000 을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09,000,000을 부담하여야 한다.

금 보석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소득세 PPh22 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은 금을 가공하는 자가 금반지등을 판매하는 곳에 금 보석류를 제공할 경우 20%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금반지를 1,000,000에 판매할 경우 부가세는 1,000,000 * 20% * 10% = 20,000이 되며 세공업체는 금반지 1,000,000에 부가세 20,000 을 포함하여 1,020,000을 금 판



김재훈 대표

매업체에 받아야 하고, 금 판매업체는 이익 포함해서 1,500,000에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1,500,000 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1,650,000을 소비자에게 받아야 한다. 물론 금 판매업체가 년 매출 48억루피아 이하 영세업체고 부가세과세대상업체가 아니면 1,500,000에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이다.<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처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산업부 장관 “중국에서 공장 이전에 3개국 대항”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Agus Gumiwang Kartasmita)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구스 장관은 미중 무역 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 이전을 생각하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인도, 방글라데시와 경쟁이 필

요하며, 중국으로부터 공장 이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달 29일자 인베스터데일리(Daily)의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 장관은 “중국에서 공장 이전의 움직임은 국내 제조업 발전의 기회로 파악하고 있다”며 “투자 유치가 갖춰진 공업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원료 공급망이나 번잡한 규정이 투자 유치를 저해하고 있다며, 고용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법의 조기 성립에 기대를 걸었다.

아구스 장관은 지난 달 29일, 중부 자바 브레베스에 있는 공단을 시찰했다. 브레베스 공단에는 미 제약회사가 중국에서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판(Luhut



Binsar Panjaitan) 해양투자 조정부 장관은 앞서 브레베스 공단에 4,000 헥타르의 제약 산업 경제특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한편 제약 원료의 90%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동서발전,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

칼셀-1 발전소 위치 칼리만탄 따발롱 지역 방호복 300벌 등 전달



▲ 한국동서발전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따발롱 보건부 등 지역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전달한 모습.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남부칼리만탄 따발롱 지역에 방역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따발롱 지역은 동서발전이 칼셀-1 발전소를 운영 중인 곳으로 글로벌 사회적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한글 학교, 지역대학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며 유대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동서발전이 전달한

물품은 방호복 300벌과 방역 고글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필요한 물품으로 수도 자카르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방역 물품 수급이 어려운 따발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서발전은 앞서 지난 4월 칼셀-1 발전소에 현장 근무용 방호복 150벌, 면마스크 1,000개 등 방역물품을 공급했으며 직원과 가족들에게도 면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 등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분량의 감염 예방물품을 제공했

다. 또한 매일 현지 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칼셀-1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아다로(Adaro)와의 공동 투자를 통해 건설된 200MW급 화력발전소로 지난해 12월 14일 종합준공에 성공했으며 준공 이후 발전소 이용률이 약 85%로 안정적으로 운전하고 있다. 동서발전의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따발롱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하루 속히 지역주민들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진 당시에도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신한금융그룹,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기부



▲ 지난 5월29일(금) 신한금융그룹 인도네시아 임원직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국가재난청(BNPB)에서 국내 바이오기업 (주)씨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코로나19 진단키트 5천명분을 기부했다. 사진(왼쪽부터)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박희진이사, 신한증권인도네시아 한일현 법인장,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황대규 은행장,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BNPB) PrasintaDewi 국장,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이종윤 관장, 신한카드인도네시아 김태정 법인장, 코트라 자카르타 이창현 부관장(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지난 5월29일(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국가재난청(BNPB)에서 국내 바이오기업 (주)씨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코로나19 진단키트 5천명분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신한금융은 2015년 신한은행이 현지은행을 인수하며 진출한 이후,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도 동반 진출해 현지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금융과 함께 기부에 동참한 (주)씨젠은 세계 60여개국에 미국 FDA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지난 4월부터는 신한금융과 함께 미얀마와 뉴욕 현지에 진단키트를 기부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내에서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통관 및 배송을 맡아 이번 기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이종윤 관장은 “KOTRA는 앞으로도 한국기업들과 함께 CSR, OVOP 활동을 지속 추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보건부, 아제 등 4개 주 ‘뉴노멀’ 전환 가능 시사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 대변인 아흐마드 유리안토는 감

염이 억제되고 있는 아제, 잠비, 리아우, 북부 깔리만탄 4개 주에 대해 ‘뉴노멀(New Normal · 새로운 일상)’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지 매체 끈판에 따르면, 4개 주는 모두 지난 1일까지 나흘간 추가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리안토 대변인은 “뉴노멀로의 전환은 자치단체장의 결

정에 따른다”며 “감염자수가 매일 감소하고 있는 것이 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포(Airlangga Hartarto) 경제 조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뉴노멀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 정부가 각 분야의 사업자 및 시·군의 코로나19 TF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아궁 이사는 “대기업은 기술과 인력면에서 뉴노멀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정보기술 인프라의 준비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바 섬과 그 이외의 지방은 통신망의 정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SNI 인증
PT. INKO FAZZA TRADING

한국에서 직 수입한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부합니다!
안전모는 세계최고 한국 안전모로

Jl. Palembang Raya Ruko Barcelona No. 52
Panunggangan Barat - Cibodas, Tangerang Banten

Telp : (62-21) 5572-7726
Mobile : 62 878-8754-7292
Email : inkofazzatrading@gmail.com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포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아이들랑가 경제조정장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수라바야 까지 연장 방안 검토”



인도네시아 아이들랑가 경제조정장관은 5월 29일 자카르타~서부자바주 반둥 고속철도를 동부 자바 수라바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도 계획과 일원화하는 형태로 진행할 방침이다.

아이들랑가 경제조정장관은 “국가전략프로젝트에 관한 회견에서 반둥 고속철도 건설 비용이 예산을 초과한데다 공사 기간도 1년이 연장됐다”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수라바야까지 연장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일본과 인도네시아 기업 컨소시엄이 해

당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에릭 국영기업장관에 따르면, 반둥 고속철도 공사 기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022년 9월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완공이 목표였다.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도 건설 사업과의 통합 가능성 여부를 국영기업장관이 조사한다.

반둥 고속철도 사업은 일본과 중국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인 끝에 2015년 중국이 담당하기로 정해졌다. 처음에는 2019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토지 수용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자카르타~수라바야 준고속철도 계획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국제협력기구(JICA)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한전산업, 1천MW급

인도네시아 화력발전 설비 시운전 수주



국내 화력발전설비 운영·관리(O&M) 기업인 한전산업개발은 현대건설과 470만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짜레본II 석탄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시운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산업은 이달부터 2022년 1월까지 1천MW(메가와트) 규모의 짜레본II 발전소 내 연료환경설비 등 시운전

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한전산업은 자체 기술인력 20여명을 포함해 총 80여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전산업은 2008년부터 해외 24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시운전 사업을 수행했고, 2012년에는 짜레본I 발전소 주설비 시운전을 맡았다.

홍원의 한전산업 대표는 “이번 수주로 국내외 발주사로부터 발전설비 운영에 대한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공인인증서

서류에는 서명 날인을 하는데 도장이 없으면 지장(指章; 指紋)을 찍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 서명(사인; signature)으로 인증이 가능했다. 그래도 중요한 문서는 공증을 받도록 했고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해 준다. 대부분의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요즘, 서로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할까? 쇼핑물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진열한 상품을 찾기 쉽도록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하도록 돕는 것이다. 배송은 제3자인 택배사에 맡기고 지불은 에스크로(escrow) 방법을 택한다. 이는, 쇼핑물이 돈을 받고는 구매자가 상품을 받은 후, 구매를 결정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당사자 간에 서로를 믿어야 하기에 인증이 필요하다.

뒤에 서(書)자가 붙은 공인인증서는 전자문서이고 우리가 그걸 읽고 내용을 알아낼 것이 거의 없는 기호(암호)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5월 20일, 1999년에 도입되어 20년을 넘긴 이 공인인증서의 존립과 제도를 설명하는 전자서명법(digital signature act)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요지는 ‘공인’이라는 말을 빼어버리면 거의 다 맞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유효하고 공인인증기관도 존속한다. 다만 공인이라는 말을 뺀 인증서, 인증기관으로 남을 뿐이고 이를 이용할 사람은 계속 이용하면 된다. 더하여 정보보안 기술을 갖춘 기업이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인증기관이 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인증의 방법은 여태까지 사용해 온 암호문으로 된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 이외에 지문, 홍채, 목소리(성문), 안면, 손바닥 등의 생체 정보를 포함한 어떤 기술이라도 된다. 이해하

기 어려운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나 양자 암호도 인증에 쓰일 것이다.

이제까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공인인증기관은 정부가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을 정해 그 밑에 공인인증기관(CA)을 지정했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컴퓨터 서버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록기관(RA)을 두어, 그 등록기관들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접수하고 직접 만나서 신원(개인, 기관 또는 그 서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등록기관은 주로 은행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맡았다. 더 편리하고 강화된 보안기술 기업이 많은데 소수의 공인인증기관에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특혜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전자서명 제도를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경쟁을 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취지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법에는 전자적 형태인 전자서명도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의 활용을 가르치던 나도 가끔 공인인증서 때문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액티브X와 다른 보조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애를 먹인 것이다. 게다가 인증서를 불러낼 암호까지 자주 바꾸고 잘 기억해야 하는 문제로 참 거북스러웠다. 독점의 폐해다.

그간에 전자서명법을 몇 번 개정해서 시중은행의 모바일뱅킹과 전자상거래 결제 등에서는 간단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생체인증 방식의 사실 전자인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휴대폰에는 MAC이라는 기기마다 하나씩의 고유번호가 있다. 유심 칩을 바꾸면 전화번호는 바꿀



조기조 박사

수 있지만 MAC은 바꿀 수 없다. 인터넷 연결이나 통화는 기기가 받은 IP 주소(또는 전화번호)와 MAC 주소를 보고 접속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증에 MAC 주소가 용이하게 쓰인다는 점이다. 인증이 필요하면 QR 코드를 읽고 연결된 곳에서 확인을 하거나 즉각 스마트폰에 인증코드를 보내서 본인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 것이다. 과거에 쓰던 콜백(call-back)과 같은 방식이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자체 앱으로 한 고객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 정보를 자기 은행의 앱에 등록시켜두고 그 은행에서 다른 여러 은행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아주 편리하다. 이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1회용 암호 발생기(OTP) 등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함께 만든 앱, ‘PASS’는 강력한 인증프로그램이다. 다른 좋은 인증 앱도 많다. 보안은 강력하고 사용하기는 쉬워야 한다. 기술이 자꾸 발달하면 인증서가 왜 필요하겠는가 싶다. 혁신가는 뼈를 깎지만 이용자는 안락하고 쾌적하다. 정치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월드컵경기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 영등포 타임스퀘어 / 중국 심양 롯데월드
리비아 트리폴리 JW 메리어트 호텔 / 인도네시아 잠신 나이키공장
인도네시아 태평양 워노기리 봉재공장단지 / 이화여대 서울병원 및 의과대학
폴란드 및 멕시코 만도 공장 / 베트남 롯데몰 하노이 /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스타필드 하남 / 말레이시아 아모레퍼시픽 공장 / 베트남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중국 청도 세브란스병원 **외국내외 다수 실적 보유**



JUNG L I M | INDONESIA
#506 Tower 2, Synthesis Square,
Jln. Gatot Subroto Kav. 64, No. 177A South Jakarta
Mobile +62 (0)852 1561 9583 / E-mail global@junglim.com
www.junglim.com

차별화된 디자인

우수한 기술력

건축 설계

건설사업관리(CM/PM)

1967년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출발한 정림건축은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4,7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2017년 영국 BD가 선정한 대한민국 1위 글로벌 건축회사입니다.

주요 설계 분야
복합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R&D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코린도그룹, 마스크에 이어 방호복 파푸아에 지원



▲ 5월29일 코린도그룹 본사에서 열린 방호복 기증행사(사진=코린도그룹 제공)

코린도그룹은 5월 29일, 오전 10시, 코린도그룹 본사 14층에서 파푸아에 방호복 기증행사를 가졌다. 머라우케(Merauke)와 보벤디굴(Boven Digoel), 그리고 마피(Mapi)군의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군에 각각 천 세트를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500세트는 코린도그룹이 운영하는 클리닉 아시키(Klinik Asikie)에 기증해 총 3천500세트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파푸아 지역은 지역 봉쇄 수준의 경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COVID-19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느 곳보다 큰 편이다. 이에 3개 군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방호복을 지원해 더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의 한국 봉제업체를 수소문해 방호복 3천500세트를 확보했다. 방호복 전달을 약속한 자리에서 코린도그룹 로버트 승수석부회장은 “다행히 현재

까지는 파푸아에 코로나19가 많이 번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회사에서 기증한 마스크에 이어 방호복을 전달하게 된 것도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지 않고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친지, 파푸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라며 파푸아에 대한 속 깊은 애정과 진심 어린 걱정을 다시 한번 표현했다.

한편, 코린도그룹이 지난 4월 9일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증한 마스크는, 5월 12일 보벤디굴 군에 마지막 물량을 보냄으로써 총 12만장이 모두 파푸아에 전달됐다.

코린도그룹은 앞으로도 파푸아 지역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자카르타 근교 반뜰주, 주내 3개 지역 출입을 허가제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근교의 반뜰주는 주내 3개 지역(땅으랑시·군, 남부 땅으랑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이달 14일까지 실시되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주지사령을 발표했다. 출입에 새로운 허가증의 취득을 의무화한다.

새로운 주지사령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1개 시와 2개 군의 주민 이외 사람이 이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 고자 하는 시 또는 군 당국이 발행하는 출입허가증(SIKM)의 휴대 및 제시가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군수령과 시장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자카르타 수도권(자보데파벵) 주민 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SIKM이 불필요하다고 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린 디아니(Airin Diany) 남부 땅으랑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의 출입을 희망하는 자는 시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simponie.tangerang-selatankota.go.id>에서 신청하고 발급된 SIKM의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주지사령에 따르면 이 밖에 공립학교는 15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계속한다.

한편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은 엄격한 위생기준 하에 재개가 허용되었다.

이 밖에 모든 중앙·지방의 정부기관, 회사, 사무실, 공공도 보건위생 프로토콜 아래에서 활동 재개가 인정되었다.

해외건설 타당성조사(F/S) 및 입찰준비비용 직접 지원받는다

수은, 중견건설사도 포함...용역비 최소 50%부터 100%까지 지원
이달 19일까지 지원대상 사업 공개모집...내달초 선정·발표

해외건설 수주 위해 꼭 필요한 사업타당성조사나 입찰준비 용역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중소건설사는 물론, 중견건설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해외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1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소, 중견기업은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과 달리, 관련 용역 등 초기 비용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F/S) 용역이 대표적이다. 해외진출을 앞서 기술, 재무, 법률 등에 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만, 용역비용 부

담과 수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웠다.

이에 수은은 해외시장 정보 및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에 조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대형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FS 비용 지원뿐 아니라 해외 시장조사 및 입찰 사전준비에 필요한 외부 용역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은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업무방법서를 개정했고 지난

달 내규 제정도 마무리했다.

지원대상 사업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해 다음달초 확정할 계획이다.

각종 해외 인프라 등 건설분야를 비롯해 병원 및 ICT(정보통신), 제약·바이오,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 대한 해외진출 사업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개발

및 참여가 활성화하고 향후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사업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사업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은이 직접 참여하게 돼 중소, 중견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기업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면서 “이로써 수은은 사업초기 타당성조사 지원부터 사업자문·금융자문, 대출·보증, 지분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전과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Furniture DONGSEO
동서가구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Our Product :

- DOOR
- + Deco Sheet
- + HPL
- + LPM
- + Duco
- + Veneer

- FURNITURE
- INTERIOR MATERIAL
- FLOORING
- SKIRTING

중견·중소사 낮은 신용에 ‘찔찔’ 공동보증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제도 도입 6년간 지원사례 3건 해외수주 기반 제공 취지 무색
업체 “보증사고 손실 보전 위해재원 마련·총괄기관 지정 시급”

포스트 코로나시대,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인가. 해외건설업체 및 전문가들은 대형사와 별도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해버린, 해외건설 공동보증제도 개편 및 활성화가 ‘1순위’ 라는 주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아 해외건설 보증서 발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 중견 기업이 공동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증지원 사례는 제도 도입 6년여간 단 3건이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급증하던 시기, 중소, 중견건설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공동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을 5개 정책금융기관을 비롯,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보증 활성화를 주문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신용도 보강을 위해 기업신용등급이 아닌, 사업성 평가를 거쳐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보증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은 여전히 사업성 보다는 기업의 신용도에 큰 비중을 두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성에 입각한 공동보증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의 내부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겉으로는 사업성만 보고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내부 규정 등 제약요건을 동원해 기존 거래 업체 외에는 신규 공동보증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성 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 조차 기관별 업무 중복과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 해체 후 공동보증제도는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업계 및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사의 공격적인 수주영업과 더불어 중소, 중견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한 공동보증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중소, 중견건설사의 보증사고 손실액 보전할 수 있는 특별재원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현행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지원 예산에 공동보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제도활성화를 위해 별도기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었다. 예컨대, 현재 중소, 중견건설사의 해외진출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건협에 상담 및 보증 중개업무를 비롯, 정책금융기관과 협의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책금융기관이나 해건협 등이 공동보증제도를 신속히 확대 시행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결제 ‘OVO’ P2P 사업 부문, 금융감독청 인가 취득



인도네시아 전자결제 서비스 앱 ‘OVO(오보)’는 5일, 자사가 출자한 전자결제 회사 타라라이트(Taralite)가 다루는 대출 중개 서비스인 P2P(Peer to Peer) 사업에 대해,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용자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사업인가는 5월에 나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경제 활동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의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OVO의 제이슨 톰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가를 통해) 국내의 모든 사람이 금

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의 비율이 높아져 금융 격차의 완화에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OV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2019년 시점에서 여전히 국민의 77%가 은행계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의 15%가 아직 자금조달 수단이 없다고 한다. 타라라이트의 대출 중개 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PT. SEPULUH SUMBER ANUGERAH 새 가족을 찾습니다.

구분	내용
업종	건설업
구인인원	1. 토목 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출 / 경력필수(5년) 2. 건축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출 / 경력필수(5년) 3. 플랜트 배관 프로젝트 매니저 : 0 명/ 성별무관/ 대출 / 경력필수(5년) 4. 기계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출 / 경력필수(5년)
주요업무내용	각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의 발주자, 사업관리자, 건설 사업자, 설계/감리자 사이의 정보 흐름 관리 및 경영
우대사항	- 대출이상 - 50 세 미 만 - 건설사 경력 5년 이상 - 인니어, 영어 능통자 - 인니 건설현장 유경험자 우대 - 토목, 건축, 플랜트 배관, 기계 관련 현장 경험 있는 자 우대
제출서류 및 선발절차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전 근무지별 담당업무 및 실적) - 1 차 - 서류, 2 차 - 면접, 3 차 - 대표이사 면접 * 서류제출 및 문의 IBRAHIM HWANG (Tel : 0811100937) E-mail: ibrahim-hwang@pt-ssa.co.id

세금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세금문제(부가세 환급, 세금 경감) 대행

비밀 보장과 깔끔한 마무리 해드립니다!

Servicio
Tax

PT. JOAKIM INDONESIA CONSULTING
Menara Jamsostek Tower N Lt.3, Jl. Gatot Subroto Kav.38, Jakarta 12710
상담문의 : 0813-1761-9876 (사무장)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35mm
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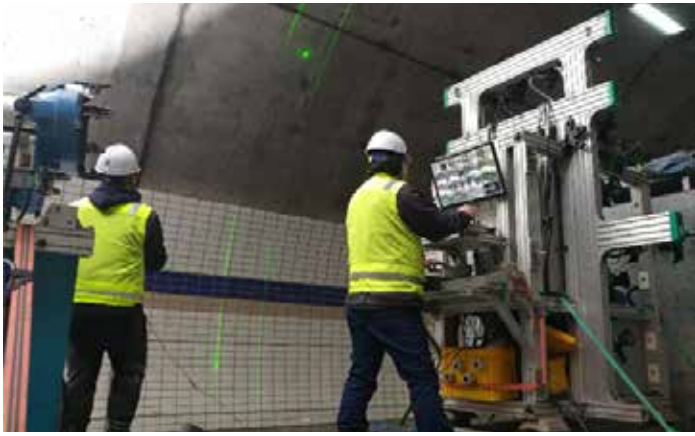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눈 대신 레이저로... 스마트한 건설신기술 등장



▲ 기술을 이용해 터널 내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의 눈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해 정확도를 높일 뿐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대폭 줄인 터널구조물 안전점검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돼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터널 등의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 기업인 (주)케이엠티엘과 케이에스엠기술(주), 백양엔지니어링(주)이 개발한 '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터널 스캐닝시스템을 이용한 도로 터널 및 철도터널 라이닝의 외관조사 기술'이 건설신기술 제887호로 지정됐다.

기술은 도로, 철도, 지하철 및 그 외 댐여수로나 풍도터널 등과 같은 터널구조물의 내부 외관의 안전도를 조사하는 스캐닝시스템이다. 즉 터널 내부 외벽의 균열 상태 등을 촬영 장비를 동원해 스캐닝함으로써 노후화된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다. 아직까지도 인력을 동원해 육안으로 균열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력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점을 극복한 기술이다.

화물용 트럭이나 철도 시설

물 점검에 동원되는 모터카를 이용, 촬영 장비를 해당 차량에 실은 뒤 터널의 모양에 맞춰 최적화된 세팅값을 적용한 뒤 차량을 일정 속도로 이동시키면서 촬영을 하는 구조다. 작업에는 촬영시 카메라간 기준이 되는 라인레이저 장치와 촬영용 팬&틸트 비디오 카메라,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하는 고조도 HMI 조명 및 이를 보조할 기타 장치들이 사용된다.

최대 16대의 카메라가 동원되는데 이렇게 촬영한 3D 이미지 파일을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 2D 도면으로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각 카메라가 촬영한 파일들을 추출해 왜곡된 부분을 보정하며 하나로 이어 붙임으로서 터널 내부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동그런 터널 내부 구조를 마치 평면의 지도처럼 펼쳐서 보일 수 있도록 균열 부분을 추출해 도면화하여 외관조사도면을 그리고 물량산출표를 작성한다.

신기술의 최대 장점은 기존에 인력에 의존하던 검사 방식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조사시간을 크게 줄였을 뿐 아

니라 변수를 최소화해 조사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인 점이다. 기존의 육안조사의 경우 소위 말하는 바가지차나 모터카에 사람을 실어 들어올린 상태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외벽을 관찰했는데 터널의 높이, 거리 등에 따라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철도 터널의 경우 전류선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이 하는 일이나 사전 프로그램된 기계에 의한 작업보다 정확도가 떨어졌다.

작업 시간도 문제였다. 육안 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구간당 발주처 측 감독관까지 4명 이상의 사람이 투입되는데 한나절 검사를 진행해도 400m 이상 전진하는게 어려웠다. 더군다나 철도 터널의 경우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몇시간만 작업이 가능해 점검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은 기존 조사 방법보다 3배 이상 작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홍사장 케이엠티엘 대표는 "기술을 15년 이상 개발해 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여러 변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K-Medicine, 한인 한의사초청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자' 온라인 특강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 이하 문화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규모 사회적제약(PSBB) 시행으로 재택근무와 휴교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카르타 소재 한인 한의사를 초청하여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면역력 증강법' 강의를 실시했다.

5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강의에서 '한의학적 측면에서 보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면역력 증강을 위한 생활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면역력의 적 성인병 탈출법'에 관해 인도네시아어로 순차통역을 진행했다.

강의 후 시청자 Q & A 시간에는 수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rosari라는 ID 사용자는 '한국인 봉제공장에서 6년째 근무 중인데 아픈 한국 사람들을 한명도 본 적이 없는데, K-Food 중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는지?', ID가 mustiana_ria라는 시청자는 '아버지가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한의사님 강의가 꽤 도움이 되었다'며



▲ 온라인 시청자와 질의응답 시간 (사진=한국문화원 제공)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용운 문화원장은 소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처음 시도한 K-Medicine 특강은 주재국민 및 한인동포들에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많은 관심으로 K-Medicine이 새로운 한류 분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다양한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시도로 한류팬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개발銀, 인니 국영 전력 지열 발전에 3억 달러 융자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달 28일,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PLN(PT PLN) 그룹이 다루는 지열 발전 사업에 3억

달러를 융자한다고 발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정기술기금(CTF)에서도 3,500만 달러를 빌려준다.

융자 대상 사업은 PLN 산하에서 지열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게오 디빠 에너지(PT Geo Dipa Energi)가 다루는 서부 자바주 반둥 교외의 빠

투하(Patuha) 지열 발전소와 중부 자바주 의 디엥(Dieng) 지열 발전소다.

게오 디빠 에너지의 리키 사장은 "(지열 발전 사업 개발로) 자바 섬과 발리의 전력 계통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연간 70만 톤 이상 절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리 항공

서울 ~ JABOTABEK 원데이 배송 시스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ADP 국제운송)

특송 쿠리어, 핸디캐리 전문업체
20년 노하우 핸디캐리, 자체 특송 쿠리어 통관 시스템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46, 1층 19번 (공항동, 대한항공 화물청사)
Telp : 02-2663-7373 / 2663-1947
Fax : 02-2663-1948
E-mail : support@soriair.co.kr

BINTANG JAYA TRANS
Ruko Sentra Bisnis Artha Gading Blok A6A No.16
Kelapa Gading Barat,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 21 4587 4577 / +62 21 2452 1355

JAKARTA MANAGER
KIM EUK SOO M : +62 813 8075 1111
KIM KEON WOOK M : +62 812 8411 3703

건설, 토목, 플랜트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22-3252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SK 건설
자카르타 021 521-1883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삼환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증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
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자카르타 021 720-4272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140-2833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

PT. POWERTECH ENG & CONST
021 520-2025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PT. WOO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

PT. HAECHEUNG DEVELOPMENT
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공단 및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5-0754

ENGINEERING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혹 업체정보의 변경 또는 누락이 있으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0858 9060 0962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PT. ALAM DUNIA ENG & CONST
땅그랑 021 5579-8505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건축설계 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PT. 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 기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PT. JEONGSUK TECH ABADI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ding
땅그랑 021 5949-2764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건축자재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Abrasive
땅그랑 021 5940-0081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e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땅그랑 021 5444-393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PT. 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Contruksi Plat Besi, Stain-
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PT. KUMGANG HYUNDAI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2930 5937

HANSHIN
콜프레스사
땅그랑 021 5949-4000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틸
찌까랑 021 8990-8327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ton
자카르타 021 522-7983

에스와이패널
EPS 패널
땅그랑 021 2932-5742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PT. 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땡 0721 780 151, 0721 781 457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PT. KCCI CHEMTECH INDONESIA
에폭시 바닥재, 접착제
쯔빠라 0291 751-2706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CV. TROPIKA PERKASA
각종가구 / 건축용 합판
버카시 0811 1929 350

설 비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필레곤 025 434-0319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and
Environment
자카르타 021 2902-2342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PT. 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트레이
땅그랑 021 558-6446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Ruko Spark Block C No. 26 Gading
Serpoing Tangerang
땅그랑 021 2901-5282

인테리어

PT. 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PT. 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PT. 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PT. INDO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INNOMATE
Interior, Office Design, Exhibition
자카르타 021 7919-2006

포위딩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건설신문 창조(월간)
특 징 : 창조는 건설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 업체 대표님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
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
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e-mail : **khong3000@gmail.com**

(주)소리향공
PT. 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 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 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 PENASCOP LOGISTIK TRANSNIAG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 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 7220

컴퓨터, CC TV, 보안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Computer LAN/Sound System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PT. TELE GLOBE GLOBAL
Elec. Mechanical Eng & Construc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
브카시 021 8240-0880

컴퓨터 윈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중장비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컨설팅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 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건축물 외관 특화 디자인 경쟁 ... 국내도 대형사 특화설계 경쟁 접화

트위스트 · 틸트 건축물 등 새로운 시도 유행



▲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트위스트 주거용 건물로 유명한 두바이 소재 '카안타워'

특화설계 경쟁에 이어 주택 외관 특화 바람이 불고 있다. 차별화한 외관을 통해 건물 가치 향상과 함께 조망 및 채광 확보 등 다양한 특징점을 누릴 수 있어 실용적 측면에서도 인기가 높다는 평가다.

실제 두바이와 뉴욕 등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이미 특이한 외형의 건축물들을 바탕으로 관광명소라는 명성을 쌓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트위스트 빌딩'으로 유명한 주거용 건축물 '카안타워(Cayan Tower)'가 있다. 카안타워는 지상 75층, 높이 307m 규모를 자랑한다. 이 건물은 층마다 1.2도씩 틀어서 있다. 때문에 1층과 최상층 각도 차는 90도다.

건설업체는 이 건물을 두고 미적 효과와 더불어 동일한 높이의 직선형 건물에 비해 풍하중(바람으로 인해 구조물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덜 받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뉴욕 11번가에 위치한 'The XI(The Eleventh)'는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주거동 타워에 트위스트 설계를 적용해 리버 뷰와 시티 뷰를 최대한 확보했다. 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효과도 꾀했다. 건물 부피를 줄여 타워 사이에 추가 간격을 확보하고, 이웃 건물의 전망을 최대한 살려 소통하는 건축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웨덴 말뒀에는 주거·상업 복합시설인 '터닝 토르소(Turning Torso)'가 유명하다. 토르소는 사람의 몸체를 의미하는 조각 용어로, 설계

를 명칭 그대로 몸체를 비트는 방식으로 적용했다. 5개층 당 약 11도씩 방향을 틀어가며 9개 매스를 쌓고, 1층부터 최상층까지 총 90도 회전하는 이 건축물은 곡선에 의한 유선형 구조와 나선형 스파이럴이 특징이다.

'틸트(베이 윈도) 기법'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내달 이창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법은 채광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초기 르네상스 시기 영국 대저택에서 쓰이던 양식이다.

독일 뮌헨의 공동주택 'Friends Wohnhochhaus'도 삼각 틸트(베이 윈도) 설계를 적용하고, 180도

시야각으로 다른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입면을 구현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De Kameleon'도 다각형 틸트(베이 윈도) 건물로 유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관을 특화한 건축물이 많지 않다. 다만,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외관 전략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외관 특화 설계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경제

쁘르따미나, 정유 개보수 실시서 한국기업과 제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뿌르따미나(PT Pertamina)는 지난 달 20일, 리아우주 두마이 정유소 개보수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영 건설 닌디아 까르야(PT Nindya Karya), 한국기업 컨소시엄 DH글로벌 홀딩스(DH Global Holdings Co.)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두마이 정유소의 개수 사업비는 15억 달러다.

양해각서 조인식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청장은 "두마이 정유소 처리 능력의 확대는 수입 석유 및 무역적자의 축소에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쁘르따미나의 이그나티우스 이사(석유화학·제조 메가 프



로젝트 담당)는 "두마이 정유소의 개수 공사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쁘르따미나는 두마이 외 동부 깔리만판 발릭빠판, 중부 자바주 필라잠, 서부 자바주 발롱안의 기존 정유소 4곳에서 개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4곳의 원유 처리능력은 현재 일량 90만 3천 배럴로, 개수 후에는 132만 9천 배럴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동부 자바주 푸반와 동부 깔리만판주 본팡에서는 새로운 정유소를 건설한다.



천년을 넘어선
첨성대는
민족의 자긍심이다.
선조의 지혜와 기술을
고스란히 이어
인도네시아에
우리 건설기업의 열을
되새긴다.

<http://www.pt-ssa.co.id/>

신뢰와 기술! 전통과 경험!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Head Office & Workshop
Jl. Raya Jakarta Serang KM 68 Kaw, Modern Industri Kav. 6 Cikande, Serang - Indonesia
Tel. (+62) 254 4029 47-49
Fax. (+62) 254 4029 51

Jakarta Office
Equity Tower Lt. 10-D Sudirman Central Busines District Lot 9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Indonesia 12190
Tel. (+62) 21 5151 604
Tel. (+62) 21 5155 687